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 인도 전역의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

이 희 봉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탑, 스투파, 차이타, 인도 탑, 불교 석굴, 간다라

1. 서론

1-1. 개요

동아시아 불교문명의 핵심 숭배물이고 한국 석탑의 원조인 인도 스투파의 형태를 분류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한다. 동북아와 동남아 제 국가로 전파되기 이전 인도 아대륙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스투파를 가능한 한 진수 현장답사하여 고찰함으로써 국내 학계에 일제시부터 오랫동안 주로 문헌 위주로 진행되어온 기존 연구를 재검토한다. 기존 한국 연구문헌에 자주 소개되는 소수의 스투파 외에¹⁾ 다양한 실물 스투파의 형태 변화를 탐구하여 독자적으로 해석한다. 스투파 자체를 넘어서 사원 내에서의 배치 맥락과 함께 파악한다. 대상 지역은 인도 전역과 현재 파키스탄 북부 간다라 지역이다.²⁾

1) 인도 스투파 연구는 본격적 대상으로서 보다는 한국 탑의 기원을 찾는 도입부로서 부분적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고, 대체로 과거 일본인 선행 연구를 답습, 바탕 정설로 이어 내려오고 있다. 예를 들면, 逸見梅榮, 『印度佛敎美術考-建築篇』, 甲子社, 1929. 황수영 “인도의 불탑”, 『석탑- 한국의 미』, 9권, 중앙일보사, 1982

2) 본 논문 모든 사진은 현지답사 관찰과 함께 직접 촬영한 것이다.(그림 16-1,4면 아마라바티 석관부조 제외)



■평지축적 스투파●석굴 스투파○4대도시

<그림 1> 현장 답사 스투파

1-2. 스투파 개략사와 의미

본디 인도의 한 왕자 고타마 싯달타가 가출, 고행과 명상으로 해탈하여 시작된 불교는 무엇을 숭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철학적 가르침이었다. 부처 사후 인도 전통 장례로 시신을 불태운 후 남은 유골을(sarira) 묻은 봉분이 스투파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초기에는 따르던

제자들이 서운하여 스승이 앉았던 빈 의자, 해탈한 보리수(즉 우주목 생명나무), 말씀의 법륜, 진도를 나타내는 발자국, 하늘로 오르는 길 등 기념될만한 형상을(form:色) 통하여 형상없는(formless:無色)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전하고자 하였다.³⁾

부처 입멸 200년후 B.C. 3세기경부터 시작하여 스투파 형상 숭배가 휩쓸게 된다. 추상적 말씀보다는 구체적 형상을 원하는 보통사람 재가신자들로부터 시작되었을 스투파 숭배는 점차 출가 비구 승단도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⁴⁾

스투파는 이미 불교 발생 이전 베다시대에 불의 신 아그니 지성소 제단에서 유래하며⁵⁾ stupa, tope, dagaba, dagopa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아소카왕이 부처님 유골 진신 사리를 꺼내 8만4천개로 나누어 전국에 스투파를 건립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⁶⁾ 탑의 원조인 인도 불교 스투파는 그 후 승단의 성스러운 숭배물로 정착된다. 유골 사리와 관계없이 ‘장례용 기둥’ 또는 ‘쌓아놓은 기념물’이라는 원뜻의 ‘차이타’는 ‘스투파’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여 스투파를 안에 모신 예배당의 뜻으로 ‘차이타 홀’이 정착되었다.⁷⁾

2. 스투파 지칭 기존 한자 번역 학술용어의 재고찰

기호로서의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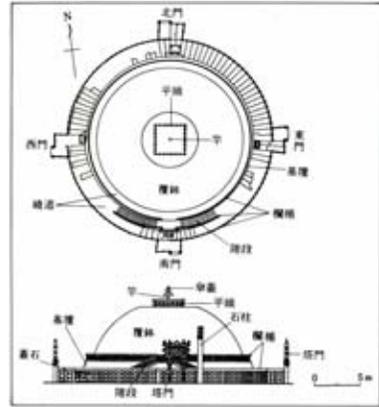
3) 형상을(form) 통하여 형상없음을(formless) 추구하는 변증법은 다양한 힌두 신앙을 이해하는 인도 철학의 기본이다.

4) 中村元, 金知見역 「불타의 세계」, 김영사, 2005, 356쪽

5)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 Seap, 1985. 45쪽

6) 현장, 권덕주역 「대당서역기」, 우리출판사, 1990. 218쪽 파탈리푸트라 성 항목. 숫자 그대로를 과학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7) 逸見梅榮, 전게서 89쪽, Fergusson, *History of Indian & Eastern Architecture*, 1910/2006, 55쪽



<그림 2> 관행의 산치스투파 원조 도면

학문 연구에서 학술용어 자체는 명확해야만 한다. 스투파 연구에서 일찍이 일본인 선행연구자에 의해 경전을 바탕으로 한 한자 번역 용어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1)원 뜻에서 벗어나거나 2)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예에 치중해서 3)또 현대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4)우리와 다른 일본식 한자어가 학술용어로 굳어져서 쉬운 본래의 뜻이 통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기존 학술용어로는 인도스투파를 지칭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힌디어 본래의 뜻에 맞는 쉬운 현대 한국어로 옮기려 한다.⁸⁾ 다음 장의 스투파 각각에서 형태의미론적으로 용어를 검증할 것이다.

국내 대부분의 탑 연구 원전으로 등장하는 문제의 산치1탑 도면이 용어 형성의 규범이 된다.⁹⁾(그림2) 입면상 기단, 복발, 상륜부의 3단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복발(覆鉢)’- ‘엮어놓은 공양 밥그릇’ 뜻의 복발은 원래 ‘알’ 의미의 힌디어 anda의 한자 번역이다. 묻어둔 부처님 사리는 새생명으로

8) 식민지 시대 영국인들에 의해 주로 시작된 인도학 연구 학술용어 영어는 쉬운 일상용어로 되어있다. 국사 학계에서는 십수년 전에 이미 일본인 연구자가 창시한 관행의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한국어로 바꾸었다. 이를테면 櫛目紋(줄목문)토기->빗살무늬토기, 堅穴地(수혈지)->움집터.

9) 일본인 작성 도면이 확실하나 국내연구자들이 출처 인용없이 계속사용하여 원작성자를 찾지 못했다.

태어날 ‘자궁속 씨’의 뜻으로서 힌두 신전의 지성소 garbagriha와 같은 의미이다.¹⁰⁾ 평지 축적봉분형 스투파에서 반구형 돔 형상으로 정착된다. 그러나 암석 파내기로 조성된 대부분의 석굴 스투파 형상은 원 의미에 맞게 거의 球形이다. 또한 한국 석탑 상부에 놓이는 ‘복발’은 거의 구형이고, ‘엮어놓은 밥그릇’ 형태는 결코 아니다.

최초 현장법사의 「대당서역기」 중 트라푸라성과 발리카성 항목에, 석가의 설법을 들은 두 장자가 고향에 돌아갈 때 공양예경하는 방법을 물은즉, 가사를 네모로 접어 깔고 “그 위에 밥그릇을 엮어(覆鉢) 스투파를 만들라”는 답을 듣고 귀향하여 같은 형상의 최초 스투파를 건립한다는 구절이 나온다.¹¹⁾ 그 후 한자문화권에서 돔을 복발로 호칭,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학술용어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무비판적으로 이어온다. 그러나 형상을 빗대어 묘사하는 복발은 인도의 원 뜻에 맞지 않는 외부관찰자 용어에 불과하다.

語義상 형태를 ‘복발형’이라 칭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엮어놓은 밥그릇 복발’이라고 곧바로 지칭하는 것은 오류이다. 위 현장의 기사를 문헌학적으로 비판하면 인도방문 A.D.7세기 초반은 이미 대승불교를 지나며 불교 자체가 밀교화, 힌두화하여 쇠퇴하던 시기인바, 석가는 살아생전 명상 해탈하는 가르침을 주었지 사물 대상을 숭배하는 힌두적인 행위를 금하였고, 불교의 스투파 숭배는 석가 입멸 훨씬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현장이 옮겨 적은, 석가가 스투파 만드는 방법을 직접 얘기했다는 것은 후세에 꾸민 얘기일 가능성이 짙다. 더구나 밥그릇을 뒤엎는 행위 복발은 동남아 불교승에게는 판을 엮는 불경스러

운 행위이다. 따라서 인도학 영어 용어 ‘dome’을 그대로 익숙한 한국 외래어 ‘돔’으로, 球形일 경우 형태에 맞게 알의 원어 그대로 ‘안다’로 본 논문에서 표기한다.¹²⁾

‘요도(繞道)’- 태양 회전 방향을 따라 돔으로써 새생명의 탄생을 가져오는 스투파 돔의 외곽 길, 힌디어 pradakshina, 영어 circum-ambulatory path를 일본인들이 요도라 번역했으나 쓰지 않는, 동음이의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쉽고 익숙한 ‘탐돌이길’(혹은 스투파돌이길)로 표기한다.

‘기단(基壇)’- 힌디 원어 ‘medhi’는 한자어 ‘기단’이라는 용어로 잘 못 번역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동북아시아 목조건축에서의 기단이나 그리스 신전에서 기단(stylobate+stereobate)은 본 건물을 올려놓기 위한 별개의 바닥 구조물이지만, 산지 스투파에서는 일체가 되는 돔의 아랫부분에 해당한다. 스투파 돔 아랫부분을 나타내는 영어 용어 drum의 외래어 ‘드럼’으로 표기한다.¹³⁾ 번역하면 ‘원통부’이다. 축적봉분형 스투파는 드럼과 돔의 일체식이나, 석굴스투파에서 구형 안다를 올려놓는 별도의 ‘대좌’로 분리 형성된다. 간다라 스투파에서 대



<그림 3> 기단+스투파의 간다라 탁실라 모라모라두 사원

12) 본 논문은 기존 학술 용어의 부적합만을 논증하는 것이고, 대안용어 신제정은 추후 학자들간의 논의, 즉 학회의 몫이나, 만약 제안을 한다면, 원 의미와 형태에 맞는 ‘부처님 알’ 즉, ‘불난(佛卵)으로 한다. 부처님 잠재 태로서 卵生을 나타낸다.

13) 영어 ‘drum’은 ①북, ②원통형 용기 즉 드럼통의 뜻이 있으나 한 일본 학자가 북으로 오해해 ‘고동부’(鼓胴

10) Adrian Snodgrass, 전계서 189쪽

11) 현장, 전계서 38쪽

좌가 발달하여 별도의 넓고 높은 사각 받침 ‘기단’ 위에 드럼+돔의 스투파가 올라앉는다. 만약 스투파의 아랫부분을 지금처럼 기단이라 부를 때 정작 간다라 스투파에서와 같은 기단과 혼동을 가져오는 불편함이 발생한다.¹⁴⁾

‘산개(傘蓋)’- 돔의 제일 꼭대기 원반(chatra: 영어 parasol, umbrella)을 어려운 한자어 산개라고 지칭한다. 인도에서 왕같은 높은 신분에게 시종이 씌워주는 햇볕 가리개, 즉 한국 전통용어이며 현대용어인 ‘양산(陽傘)’이며 고귀함 자체를 상징한다. 원반은 바퀴를 나타내는 범륜과도 같은 의미이다. ‘산간(傘竿)’은 글자그대로 양산 장대, 즉 <그림 4> 난간기둥. (부바네스와르박물관)



‘난순(欄筵)’- 원어 vedika로서 연구를 선점한 일본인들이 ‘난순’으로 번역하여 대다수 한국학자들도 따르고 있으나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다. 쉽게 ‘난간(欄干)’이다. 성물 주위를 둘러 실질적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울타리 난간 즉 ‘울난간’과,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 난간의 두 종류가 있다. 울난간은 힌두문

部) 즉 ‘북 몸통부’로 이상하게 번역해 놓았다.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역 「인도미술사」, 다할미디어, 1999, 124, 127쪽

14) 실제로 천득염 “인도 시원 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1993,12 에서 “1단이었던 기단은 2단에서 3단으로 변하고 간다라 지방에서는 ‘건축물 기단형식’으로 변한다.”(96쪽) “후대로 내려오면서 기단 외곽에 있는 원형의 단은 방향의 넓은 단(platform)으로 변한다. . 기단 외곽의 이 단을 탑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이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가 없어 기단이라는 말과 다소 혼동이 된다.”(97쪽)

스투파의 한 부분인 ‘드럼’과 스투파의 대좌인 ‘기단’을 분리하여 호칭하면 혼동이 없다.

화의 우주목 승배에서, 또 불교에서 석가가 해탈한 보리수 나무승배에서 나타난다. 돌난간기둥을 세우고 횡난간들을 수직 힘에 버티게 볼록렌즈형 단면으로 깎아 장부맞춤으로 흠에 끼워넣는다.¹⁵⁾(그림4)

산치1스투파에는 원형 스투파 주위에 4방위 ‘塔門(torana)’이 포함된 ‘울타리 난간’을 둘러 地面 탑돌이길을 만들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상단 탑돌이길을 만들어 떨어지지 않게 보호 난간을 만든다.(그림5)



<그림 5> 상하 2중 탑돌이

‘평두(平頭)’- 산 길, 난간과 탑문. 산치1스치 스투파 돔 위의 투파

사각 울타리 난간 구조물을 ‘평두’라고 번역하였지만, 원어 harmika는 인도 대부분 스투파에서 사각울타리난간과 그 상부 기둥으로 표시되는 건물과 그 위에 인도고고학자들이 ‘Tee’라고 불렀던 ‘역피라미형 층단내민 구조물’의¹⁶⁾ 3부분으로 구성된다.(그림6) 인도 전체 스투파에서 단순 상자 사각형 형태는 극소수이므로,¹⁷⁾ ‘평두’라는 언어 기호가 나타내는 ‘평평한 머리’라는 번역은 부적합하다. 인도 스투파 역피라미는 중국 운강석굴에서 한국 석탑 상륜부의 간략화된 ‘양화(仰花)’ 형태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각난간+집본체+역피라미의 3부분으로 구성되는 harmika는 불교 이전 브라흐

15) 불국사 70년대 보수시 원형 단면 횡부재 돌난간이 대부분 부러져 전면 교체된 것으로 보아 인도의 볼록렌즈형 단면 돌 난간이 역학적으로 더 안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J. Fergusson, 전제서 70쪽

17) 산치스투파와 아마르바티 판석부조 일부에만 나타난다.



<그림 6> 하미카. 바자
14굴(Fergusson)

만 시대 불의 신 아그니 제사 제단이라는 설이 유력하며 불교 이후 사리유골함 뚜껑으로 시작 되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을 유보하고 ‘하미카’로 지칭하고자 한다.

‘상륜부(相輪部)’- 한국탑의 탑신 위 전체를 관행상 상륜부로 표현하나, ‘모양 相, 바퀴 輪’의 상륜부라는 언어는 양산만 가리킨다. 노반, 복발, 양화, 수연, 보주를 포함하는 꼭대기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상륜부’ 명칭은 인도 스투파에서도 양산과 하미카를 포함하는 ‘塔上部’로 고쳐 부를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 일본인들이 선점한 선행연구에서의 불완전한 한자번역 용어로 인도 스투파 형태를 지칭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본 논문에서 외래어 포함 쉬운 현대 우리 언어 혹은 힌디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스투파의 형태 분류와 해석

창시에서부터 수 세기에 걸쳐 부가된 연대의 누적과 지리적 광활성 때문에 인도 스투파 형태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설명의 편의상 인도 스투파를 4개 군, 1)석가모니 주 활동지역이었던 비하르주와 네팔 일대의 동북인도와 산치, 바르후트의 중인도지역과 안드라주의 중남인도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평지축적봉분형, 2)대부분 파괴된 축적봉분형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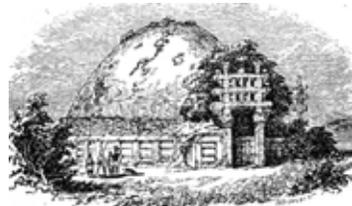
적이나 석굴의 돌벽에 새겨진 부조스투파, 3) 중서부의 데칸고원에 주로 분포한 석굴의 스투파, 4)과거 인도였으나 현 파키스탄 북부에 속한 간다라 스투파로 나눈다. 본론에서 1차 사실적 관찰을 중심으로 형태 형성의 추정과 해석을 해 나간다.

3-1. 평지 봉분형 築積 스투파

평지에 쌓아 만든 봉분형 축적스투파는 인도에서 불교 쇠퇴 후 힌두교와 이슬람교에 밀려 또 근세 사리 약탈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대부분 그 바닥 흔적만 겨우 남아있어서 초기 모습을 알기 어렵다. 당나라 현장이



<그림 7> 산치 1스투파



<그림 8> 산치1스투파 1910 이전.
상부 파손 모습(Fergusson)

수학했던 불교대학으로 유명한 날란다 대스투파도 초기 형태를 알기 힘들고 초전설법 장소인 녹야원 사라나트 사원 단지 대스투파도 바닥흔적만 겨우 남기고 있다.

한편, 한국 불교연구에서 잘 알려진 비하라 승원도 다수 분포하는 산치 사원 대단지의 스투파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다. B.C.3세기경 아소카왕 시기부터 조성되어 B.C.2세기 승가, A.D. 4세기 굽타왕조의 수세기에 걸쳐 확장 증

축되었고 20세기에 보수 복원되었다.(그림7,8) 잘 알려진 대스투파 외에도 3스투파, 2스투파와 더불어 여러 개의 소 스투파와 스투파를 안에 모셨던 말굽형 차이타 사원도 존재한다.

대스투파는 아소카왕 시대에 흙과 벽돌로 쌓은 최초 스투파를 승가 왕조때 2배 크기로 증설, 현재 직경 36m의 돔을 가지런히 규격 가공한 돌로 감쌌다. 4방위 탑문이 있는 울타리난간으로 둘러싸 탑돌이길을 형성한다. 계단을 올라가 4.2m 높이 원통부 드럼 위에 난간 두른 상층 탑돌이길이 있다.(그림5)

돔 정상에 육중한 돌 사리함 중심에 3단 양산의 양산대가 꽃혀있고 사각 울난간으로 두르고 있다. 일본인 선행연구자가 이 사각 상차울난간을 ‘평두’라고 안이하게 지칭하여 학술용으로 정해져버렸다. 1828년 발견당시 상부가 완전 허물어져 있었고(그림8), 현재의 소위 평두 난간과 3단양산은 20세기초 부분 해체 후 복원된 결과라서¹⁸⁾ 원형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림 9> 산치 3스투파

따라서 산치탑은 학술용어 제정의 표준이 되는 곤란하다. 아소카 시 양산 원반 돌은 현지 박물관에 전시되어있고 현지 땅바닥에 미처 자리잡지 못한 양산 원반 돌이 놓여있다.

울난간의 진입 탑문은 도는 방향으로 비틀어져 탑돌이 회전을 의미하는 만달라적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스투파 바로 옆 조금 작은 직경 15m 3스투파는(그림9) 현재 남쪽 탑문만 있고 울난간은 사라졌으나 원통드럼 위 상단탑돌이길과 난

간은 건재하며 평두난간과 단일 양산이 있다. 또 단지 서쪽 외부 뚝 떨어진 낮은 지형에 울난간으로 둘러싸인 2스투파는 상단 탑돌이길의 난간은 없고 상륜부는 아예 없어졌다. 난간 기둥과 가로대에 장식 부조가 잘 남아있다. 산치 단지에는 복원되지 못한 소형 축적스투파가 최소 10개 이상 있다.

스투파 자체보다 각종 정교한 장식 부조로 유명한 바르후트 스투파는(B.C.2세기경) 직경 21m로 현지에는 완전 파괴되었으나 드럼 판석, 조각된 난간기둥, 한쪽의 탑문 일부가 콜카타 인도 박물관에 재현 전시되어있다.

18세기말 발견된 중남부 인도의 아마르바티의 직경 50m나 되는 거대한 대스투파는(A.D.2



<그림 10> 아마르바티 대스투파

세기경)(그림10) 거의 파괴되어 현지에 키 높이의 탑돌이길 바닥만 남기고 있고, 난간 조각 파편이 일부 남아있으나 대부분 대영박물관으로 약탈반출되어 전시되고 있다. 여러 드럼 판석에 수차례 이 스투파의 장식이 화려하게 변화된 과정이 잘 조각되어 본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그림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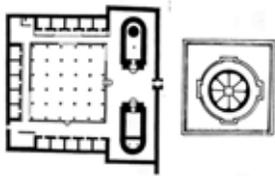
중남부의 1920년 발견된 나가르주나콘다는 용수(龍樹)로 번역되는 고승 나가르주나와 연관된 대규모 사원 단지로서(A.D.3세기경) 1950년대 후반 댐건설로 수몰되게되자 발굴되어 일



<그림 11> 나가라주나콘다 대스투파

18) Debala Mitra, *Sanchi, Archaeology of India*, 2001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부가 현재 섬 언덕에 이전 복원되었다. 위가 파괴된 대스투파는(직경 28m)(그림11) 벽돌로 쌓은 세개의 동심원 수레바퀴살 구조 심벽 사이에 흙과 돌을 채워넣은 구조를 볼 수 있다. 외곽은 벽돌 울로 감싸 탑돌이길을 확보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원형 스투파 상층 탑돌이길 네 방위에 사각 단을 돌출시켜 아야카(ayaka)



비하라+ 불상 스투파 대칭쌍 말굽 차이타+ 주 스투파

<그림 12> 나가르주나 3호 유적

라 부르는 5개의 기둥을 세운 것이다. 아야카 기둥은 아마르바티 스투파의 판석 조각에 잘 나타난다.

이 단지에는 수물전 27개소의 비하라 승원과 20여개의 스투파 유적이 있었다. 나가르주나 유적의 전형적 사원 평면은 주 스투파 앞의 3면 독방열의 정방형 비하라에 마주보는 소 스투파와 불상을 각각 모신 대칭쌍 차이타 구조이다.(그림12) 주 스투파를 우선으로 하여 사원내에서는 불상과 소 스투파가 같은 비중으로 경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심 대스투파 외에 말굽평면 차이타가 단

지 곳곳에 산재해 있고 안에 석회암 블럭 외장의 소형 스투파를 모시고 있다.(그림 13) 마치 에스키모 이글루와 흡사하며 드림부가 반구 돔 보 다 약간 더 길다.



<그림 13> 나가르주나콘 다 말굽 차이타 내 스투파

최초 불교석굴 스투파로 유명한 B.C. 2-1세기의 군투팔리에는 석굴 사원과 함께 외곽에 축조 단지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원형 차이타 속에 단일 양산의 석회암 블럭으로 감싼 스투파가 모셔져 있는데, 소형 축적 스투파의 원조로 보인다.(그림14)



<그림 14> 군투팔리 원형 차이타 내 스투파

평지 축적봉분형 스투파를 정리하면, 인도 불교 쇠퇴와 더불어 대부분 스투파의 돔 부분은 철저히 파괴되고 허물어졌으나 남은 바닥평면은 거대한 규모와 둘러싼 신성한 울란간과 사이의 지상과 상부 탑돌이길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파괴로 인하여 구조 벽식 단면이 드러난다. 만달라적 구조의 스투파는 원형이지만 동서남북 4방위에 출입 토라나 탑문 혹은 방형 단 위의 아야카 기둥을 통하여 원형에서부터 4방향성을 갖는 동아시아의 정방형 탑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소형 축적스투파는 주로 사원단지의 말굽형 차이타 속에 모셔져 있는데, 석재 블록으로 외장마감되며 드럼부 비례가 반구 돔에 비해 길어짐을 보여준다. 온전히 남지 못한 축적스투파 유적은 다음 절의 현지에서의 발굴된 드럼석판과 난간 부조장식으로 형태를 복원 추정할 수 있다.

3-2. 부조(浮彫) 스투파

돌에 돌을새김한(浮彫) 스투파 형태는 오늘날 온전하게 남아 연구의 중요자료가 된다. 몇 개의 계열로 나누자면 ① 탑문 장식 부조(산치) ② 스투파 드럼 판석 부조(아마르바티, 나가르주나콘다) ③ 석굴 외부, 내부 부가 부조 ④ 석굴 비하라 중심 숭배 부조(나식 3굴) ⑤ 차이타 기둥 부조(카를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①과 ②이다.

스투파 초창 200년 후 B.C. 1세기로 추정되는 산치 탑문에는 초기의 숭배대상이었던 보리수, 법륜, 불전도가 빼곡히 새겨져있고, 또한 스투파가 여럿 새겨져 있다. 반구형 안다 몸체를 중심으로 울난간과 상부탑돌이길의 이중난간이 뚜렷하며, 두 번째 그림은 3중난간에 탑문까지 조각되어있다.(그림15) 탑상부 모습은 현재 복원된 스투파와는 아주 다르다. 돔 정점에 소위 평두라고 번역하기 부적합한 하미카가 있다. 즉, 사각 난간상자가 놓이고 그 위에 3,4단의 역피라미드 층단 구조물이 내뻗는다. 고귀함을 상징하는 양산이 마치 왕관처럼 최종 마감된다. 복원된 산치 1스투파에서처럼 위로 솟는 3층양산이 아니라 단층양산이다. 다만 주양산 좌우에 두 보좌양산이 主佛을 모시는 협시와 같다.(그림15. 2,3,5번째 그림) 양산에는 끈이 달려있다. 돔 몸체에 매듭술을 늘어뜨려 감싸서 스투파를 장엄하고 있으며, 스투파 좌우에 지킴이, 상부 귀에 나무여신 약시, 하부



<그림 15> 산치 스투파 탑문 부조 스투파에 떠받들어 경배하는 사람이 조각되어있다. 후의 석굴 스투파의 문지기 금강역사, 좌우 상부 귀의 비천상의 원조로 추정된다. 탑문의 부조스투파를 통하여 한국탑 연구의 잘못된 기준으로 삼아온, 변형 복원된 현재 산치스투파의 원형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전체가 파괴된 A.D. 3-4세기경의 아마르바티 스투파에서 발굴된 다수의 드럼판석 유물의 스투파 부조는 산치에 비해 원통 드럼 부분이 수직으로 좀 더 길어진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6) 토라나 탑문 대신 4방향 아야카 5기둥을 볼 수 있다.(그림16-3, 17) 돔의 매듭술 장식



<그림 16> 아마르바티 드럼 판석 부조



<그림 17> 아마르바티 드림 판석 부조 (첸나이 박물관)

이 산치에 비해 훨씬 화려해지고 X자형으로 감싸기도 한다. 코브라뱀 나가 신의 모습과 사자, 법륜의 조각을 볼 수 있다. 정상 하미카의 난간 상자 위 기둥이 보이며 상부에 역피라미드 층단구조물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양산이다. 주 및 좌우 부 양산대는 하미카 정상에서 식물 넝쿨 줄기처럼 휘늘어지게 솟아나 양산 원반은 마치 만발한 버섯모양으로 가득 드리운다.(그림16) 불교 힌두교 공히 장식 주제로 빈번히 사용되는 ‘가득찬 향아리’의(purna-gghata: 일본번역 滿瓶(만병)) (그림18) 만발한 꽃과 같다. 향아리를 감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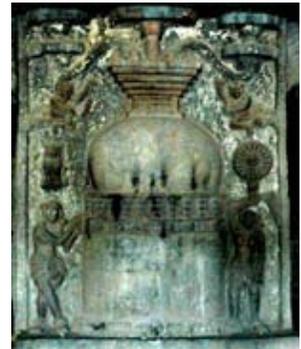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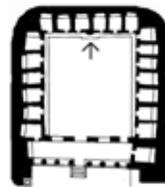
<그림 18> 가득찬 향아리 스투파 판석 조각. (첸나이 박물관)

듭술 장식이 스투파 돔과 동일하며 공히 부처님 몸을 상징한다. 즉 스투파 돔은 안에 묻은 부처님 사리 향아리의 외함으로서의 큰 향아리이며, 꽃이 만발하듯 진리의 法(dharma)이 가득 피어 나가는 상징이다.¹⁹⁾ ‘꽃

가득찬 향아리’는 한국 불교 사찰의 창호 조각에서 자주 나타난다.

나가르주나콘다의 축적스투파의 실물 아야카 5기둥이 아마르바티 석판에서 부조로 그대로 나타난다. 아마르바티 석판 부조를 통하여 초기 단순 장식의 스투파에서부터 화려한 장엄의 극치로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B.C.1세기 추정 나식 판두레나 석굴군에서 사당 차이타굴 스투파와는 별도로 승원비하라인 3굴의 안마당 정중앙 벽면에 스투파 조각이 도입된다.(그림19) 거주굴이 예배굴화하는 시초로서 의미있는²⁰⁾ 스투파 부조 형태를 보면 돔 본체는 원래 안다의 의미대로 알모양 구형으로 조각했음을 알 수 있고, 원통드럼은 구와 일체가 아닌 알을 올려놓는 분리된 대좌의 모습을 갖는다. 드림 상부에는 축적스투파의 탑돌이길 난간이 명확히 조각되어있다.



<그림 19> 나식3 비하라굴 스투파 부조 및 평면 탑상부에 전형적인 난간 베디카와 역피라미드 층단 내뺨침구조물과 그 위에 중심 양산으로 마무리된다. 중심양산 좌우에 양산대 줄기가 뺨어나가 2층의 양산으로 총 5개 양산인데, 주1부2의 3양산대 개념은 산치, 아마르바티와 같다. 스투파 양 옆은 약시 여신이 웅위하며 그 위에 법륜과 사자조각이 있고 상부 귀에 비천상이 지키고 있다.

19) Peter Harvey, "Venerated Objects and Symbols of Early Buddhism" *Symbols in Art and Religion*. 84-85쪽. 스투파 돔이 부처님 몸체를 상징함은 Snodgrass 전게서 360-61쪽,

20) 이희봉, "인도불교 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2008.8.144쪽



<그림 20> 보리수 정령 약시가 깃들어있어서 승배. 산치 2스투파 비천상의 원조가 된다.

난간기둥 조각 돌을새김 스투파는 실물이 아닌 조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웅위 여신과 비천상과 경배모습을 표현하고, 여러 갈래의 겹양산으로 고귀함으로 가득참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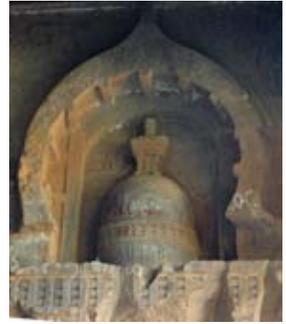
다음으로, 석굴 내 외부 벽에 부차적으로 새겨진 부조는 두 종류가 있다. 기준 평벽면을 파고 들어가 돌을새김한 부조와 기준



면에서 튀어 나오게 <그림 21> 카를리 석굴 새긴 부조 두 가지다. 기둥 돌출 새김 스투파 전자는 석굴 조성 후대에 평벽면에 얼마든지 부가할 수 있지만 후자는 석굴 개설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앞의 나식 3굴 부조와 마찬가지로 카를리 차이타 석굴의 한 팔각기둥에 새겨진 돌출 스투파 부조 (그림 21) 역시 튀어나온 부조로서 석굴창시 연대 A.D.1세기 추정 작품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드림+돔+층단역피라미드+양산으로 구성되었다.

콘다네 석굴 비하라 입구 베란다 우측 상부 벽에 새겨진 돌출 스투파 역시 석굴 개설 연대와 같다.(B.C.1세기).(그림22) 베란다 난간 위 뽕족아치창 안에 드림+난간+돔+난간+층단

역피라미드+양산대로 구성된다. 다만 양산이 처음부터 배제된 이유는 스투파를 감싸 보호하는 아치창이 양산의 신성함을 대체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그림 22> 콘다네 비하라굴 입구 베란다 스투파 부조

다음으로 B.C. 1세기 추정 초기 아잔타 9굴 차이타 석굴 외부벽면의 벽면에서 안으로 파고들어간 3개 부조는 옆에 즐비하게 조각된 불상군으로 보아 최소한 대승불교 출현 후 후세의 부가조각으로



<그림 23> 아잔타 9굴 외벽 부조

추정된다. 돔은 알을 나타내는 거의 구형이다. 첫째, 둘째 드림은 겹 난간 띠로 정교히 조각되어 울난간의 신성함과의 결합으로 해석한다. 셋째 드림은 가운데가 들어간 상하 단순면 띠 돌림의 수미좌형 대좌로 바뀌어있다. 셋째는 파괴되었으나 두 양산은 술 달린 3층이다.(그림23)

알 모양 안다와 다른 모양의 술 달린 3층 양산의 A.D.2세기경의 칸헤리 차이타굴 외벽 두 스투파부조는(그림24) 수미좌형 대좌 아래 기단



<그림 24> 칸헤리 차이타 외벽 부조

형 바닥 받침이 발달하여 보다 높이 모심을 꺾는다.

3-3. 석굴 스투파

인도 대륙에서 B.C.3세기경부터 시작된, 암벽을 파내어 조성된 석굴의 중심 차이타굴의 스투파가 가장 많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가장 오래된 군투팔리 석굴 차이타는 석굴암과 비슷한 평면으로 전실 안쪽의 원형돔에 드럼과 반구 돔의 단순 형태의 스투파가 모셔진다.(그림25) 없어진 탑상부의 원모습은 알 수 없으나 천정의 방사형 양산살 뼈대로서 돔 자체가 양산 역할을 대체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5> 군투팔리 스투파 평면, 정면, 양산살 뼈대 천정

마찬가지로 원형방 속에 모셔진 B.C. 2세기의 안드헤리 석굴²¹⁾ 스투파는 드럼+반구돔의 단순 형태인데, 탑상부는 완전 파괴되고 드럼 상부에 마모가 심한 난간이 겨우 흔적만 남기고 있는데, 돔형 굴 천정이 양산역할을 대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B.C. 2세기경부터 개설되다가 북쪽 절벽으로 옮겨가버린 피탈코라 초기 남쪽 절벽의 4개 차이타굴 중 10굴은 드물게 원추형 난간띠 두른 경사드럼 위에 구형에 가까운 안다를 모시며 정상부 하미카는 대부분 파괴되어 꼭지



<그림 26> 피탈코라 10굴, 11굴

흔적만 남기고 있다.(그림26-1) 11굴은 드럼부 외피는 거의 파괴되었으나 난간 흔적은 남기고 있으며 반구 돔 위의 하미카는 사각난간으로 된 건물 몸체 위에 4층단의 역피라미드로 내뻗어 있고 천정부에 2중 원의 양산이 새겨져 있다.(그림26-2)

인도 전형적 차이타 석굴, 즉 말굽형 평면 기둥렬 속에 스투파를 모시는 가장 오래된 바자 석굴(B.C.2-1세기) 스투파형태는 아주 단순하다.(그림27) 안다비 0.7정도의 낮은 무장식 드럼의 안다는 아래부분을 약간 접어넣어 구형을 갖추려고 하였고, 탑상부는 2중난간의 하미카만 남고 위는 멸실되었다. 바자 석굴에는 특



<그림 27> 바자석굴 주 차이타 스투파 및 14 스투파 굴

이하계도 14개의 스투파가 한 굴 안팎에 모여 있는 굴 내부의 스투파는 드럼 상부 난간 위 반구 안다와 정상부에는 사각난간과 건물몸체 위에 내민 6층단 역피라미드와 그 위에 다시 난간으로 된 벽체건물이 있다. 스투파 상부 천정에 2중 원의 양산이 부조되어있다.

내부 기둥열은 완전 파괴되고 스투파도 거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21) 기존 모든 인도 석굴연구에서 콘디브테(Kondivte) 석굴로 알려져 있으나 현지에서는 전혀 없는 이름이다.



<그림 28> 준나르 틀자레나 스투파 평면, 천정, 입면

의 파괴되어 돔 형태만 남은 콘다네 석굴 스투파는 상부에 2중 난간의 하미카 모습을 남기고 있다.

최초로 기둥으로 스투파를 둘러 감싼 원형 굴인 준나르 틀자레나의 12개의 기둥열 속의 스투파는 단순 드럼과 반구 돔으로 되어있고 상륜부는 없는 대신 기둥열로 받쳐진 원형 돔 천정이 커다란 양산을 씌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28)

B.C.60-70년경 초기 개착된 아잔타의 석굴 중 10굴의 스투파는 2중드럼 위 반구로, 탑상부의 하미카는 사각난간 위에 3개의 뾰족아치장을 갖는 건물과 그 위에 3층단 내밀기식 역피라미드로 마감되어있다.(그림29-1) 9굴은 평드럼 위 좀 더 구형에 가까운 돔 위에 하미카는 사각난간과 지붕판 위에 5층단 내민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29-2) 두 스투파 모두 양산



<그림 29> 초기 아잔타 10굴 및 9굴

은 멸실 된 것으로 보인다.

굴 전면이 거의 파괴된 아우랑가바드 4굴은 난간 흔적만 있는 위로 약간 가늘어지는 드럼 위에 아래가 좁아지는 약간 구형의 돔 위에 반쯤 부서진 사각난간 위 기둥 집 위에 4층단 내밀기 하미카가 있다.(그림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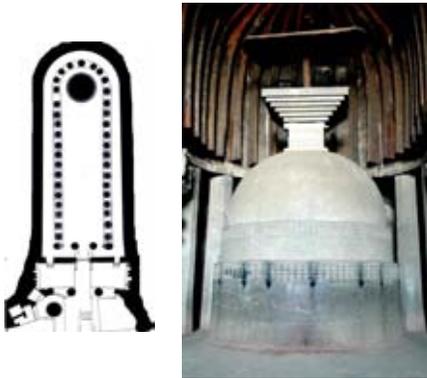


<그림 30> 아우랑가바드 4굴

나식 판두레나 24개 석굴 중 유일한 차이타 굴인 18굴은 안다 돔 길이의 2배가 넘는 유난히 높은 특징적 드럼 위에 난간 조각이 선명하며, 그 위에 반구 돔과 탑상부에 2중난간과 5층단 내밀기 역피라미드와 최상부에 다시 난간으로 마감되어있다.(그림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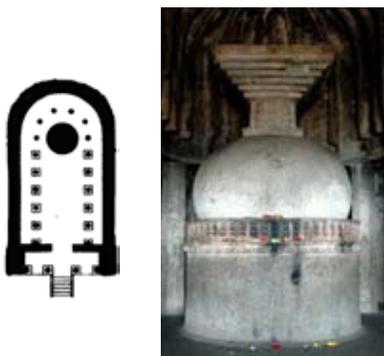
<그림 31> 긴 드럼: 나식18굴, 베드사 스투파 거의 비슷한 비율의 베드사 차이타 석굴의 드럼 제일 아래 난간 장식은 신성한 울난간이 압축되어 들어온 것으로 해석한다. 그 위 2중난간이 다시 솟아있다.(그림31-2) 탑상부 사각난간과 건물위 5층단 내밀기 역피라미드로 마감되고 특이하게 그 위 양산대 위에 양산 대신 연꽃 봉오리가 꽃혀 있다. 드럼이 길어짐은 스투파를 점점 높이 모임을 의미하며 다중난간은 안의 안 공간의 겹으로 귀하게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림 32> 카를리 석굴 평면 및 스투파
 차이타의 완성이라 일컬어지는 최대 크기 석굴 카를리 스투파는 난간장식의 2중 드럼 위 돔과 탑상부 사각난간몸체 위 6층단 내밀기 역피라미드로 구성되며 최상부에 석굴스투파에서는 드물게 양산이 남아있다.(그림32)

고대 사타바하나 왕조 수도였던 준나르의 근교 3개 지역 200여 이상의 석굴중 40여개의 굴이 있는 레냐드리 석굴군의 중심 차이타 6굴은 난간장식 드럼 위 거의 구형의 안다가 특징적이고, 탑상부는 사각난간 위 6층단 역피라미드로 내뿜고 상부 양산은 양산대만 일부 파손된 상태로 남아있다.(그림33)

레냐드리 방형 차이타 14굴은 안다의 1.5배의 긴 드럼 바닥에 3층단의 받침돌림띠가 있고 상단에 난간 장식이 있으며 그 위에 거의 구형 안다가 모셔져있다. 탑상부에 사각난간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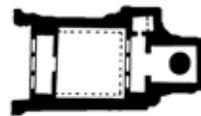
<그림 33> 준나르 레냐드리 6굴 차이타 평면 및 스투파

체 위 역피라미드 5층단이 내밀고 있다. 평천정에 피탈코라 11굴, 바자 스투파굴에서 처럼 천정에 큰 원형 양산과 양산받침의 조각에 더해 돌 구조상 굽어야만 하는 양산대가 남아 있다. 준나르 쉬바네리 석굴군 차이타 스투파는 레냐드리 14굴과 마찬가지로 3단의 받침돌림띠가 있으나, 드럼 상단의 난간띠가 마치 안다의 바닥 돌림면띠로 간략 처리된다. 신성한 스투파임을 표시하던 기호로서의 난간의 원래 형태가 사라지고 점차 단순면의 돌림띠 장식화



<그림 34> 준나르 레냐드리14굴 및 쉬바네리 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그림34)

아라비아해에 면한 서쪽 끝 콘칸 산맥 중턱의 쿠다 석굴군은 특이하게 차이타 굴이 말굽형 대신 方形으로만 4개 있다.(그림35) 입구 베란다 안의 홀 안쪽에 평천정의 방형 굴에 스투파가 모셔져 있다. 쉬바네리처럼 스투파



<그림 35> 쿠다 6굴 평면 및 6굴, 15굴 스투파



<그림 36> 칸헤리 주 스투파

드럼 상부에 간략 면처리된 난간 흔적과 드럼 바닥에는 3층단의 받침돌림띠가 있다. 신성 기호의 울난간이 간략화 되어 스투파를 땅으로부터 분리시켜 모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안다는 구형에 가깝고 상부 평두와 역피라민 층단 내민 구조물과 천정에 양산 부조를 새긴다.

대도시 뭄바이 근교의 칸헤리 석굴은 100여굴이 있는 B.C.1세기부터 A.D.9세기경까지 소승에서부터 불상숭배의 대승불교까지 천년을 이어간 대규모 사원 단지인데, 주 차이타굴 스투파는(그림36) 드럼 상부에 면처리 난간 흔적과 쉬바네리처럼(그림34-2) 구형 안다 바닥 면 돌림띠가 겹쳐져서 마치 이중난간처럼 보인다. 점점 스투파의 신성함을 더하는 겹돌림띠가 발달하는 시초로 해석한다. 칸헤리 말굽형 주 차이타굴 바로 옆 방형 차이타굴이 있는데(그림37) 첫굴은 가장 단순한 드럼과 반구로 되었지만 3벽면 가득히 조각된 불상 보살상 군들은 소승에서 대승불교로의 누적을 보여준다. 두번째굴 스투파는 전형적인 상부 난간띠의 약



<그림 37> 칸헤리 방형굴 스투파

경사 드럼과 그 위 구형의 안다와 탑상부에 난간+ 역피라민 하미카와 천정에 새긴 원형 양산과 양산받침이 명확하다.

주 차이타굴 앞에 있는 작은 원형 봉헌굴의 스투파는(그림38) 전형적 초기 형태인데 다만 드럼에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드럼상부의 난간이 명확하고 거의 구형인 안다 정상에 난간몸체 위 층단 내민 역피라민과 천정에 새겨진 원형 양산과 양산받침과 양산대의 조각이 잘 나타난다. 드럼의 오목면 불상조각은 대승불교 후 부가로 추정한다.



<그림 38> 칸헤리 소 봉헌굴

위 층단 내민 역피라민과 천정에 새겨진 원형 양산과 양산받침과 양산대의 조각이 잘 나타난다. 드럼의 오목면 불상조각은 대승불교 후 부가로 추정한다.

아라비아해 연안 마하드의 콜 석굴의 소 차이타굴은(그림39) 약경사 드럼과 상부 난간과 구형 안다 위 탑상부에 사각몸체 위 5층단 역피라민의 하미카가 천정에 붙어있는 전형적 형태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아잔타 석굴군은 초기 B.C.1세기-A.D.2세기의 초창 후 200년 가까이 휴식 후 굽타기인 A.D.4세기경 다시 건설된다. 후기 19, 26굴의 스투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투파 개념으로 제작 된다. 한마디로 스투파 자체가 화려한 불상 궁전과 결합된다. 19굴은 화려한 연꽃과 소용돌이 넝쿨 문양의 기



<그림 39> 콜 소 봉헌굴



<그림 40> 아잔타 19굴 26굴

단 위에 있는 드럼의 앞면은 기둥 안 부처입상의 불전이 되고 상부 구형 안다는 마치 텐트 구조 지붕처럼 늘어져 불전과 하나로 연결된다.(그림40-1) 상부 평두에는 불상이 조각되고 그 위 4층단 역피라미트는 각면 중앙이 사방으로 돌출하여 조형성을 높이며 최상부 3단의 양산이 위로 솟는다. 양산 밑은 사방 쿠베라 인물상이 받치는 정교한 조각이 된다.

마찬가지로 26굴은 기단위 드럼 전면에 5세기경 유행하던 무릎세워앉은 불상이(pralamba-padasana)²²⁾ 기둥으로 받쳐진 궁전 속에 모셔지고 드럼 뒷면으로 빙 둘러 불입상이 빼곡이 조각되어있다.(그림40-2, 41) 다만 드럼 궁전과 구형 안다는 조형적으로 분리되고, 정점에 난간평두 기둥사이 삼간에 불입상이 조각되고 상부 9층단의 역피라미트가 내뻗어 있고 양산은 파괴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안다



<그림 41> 아잔타 26굴 스투파 후면 불상조각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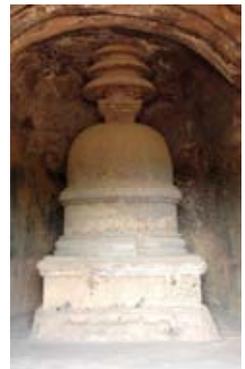
에는 비천상이 조각되어 날아간다. 앞서 본바와 같이 대승불교로 변하면서 초기 단순 스투파에 불상이 부가 조각되던 것과는 달리 아잔타 후기 차이타 스투파 자체가 불상 궁전화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해석한다.

힌두교, 자인교와 함께 개발된 엘로라 석굴군중 유일한 불교 차이타 10굴은 아잔타 19, 26굴과 거의 같은 설계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스투파 드럼 앞으로 돌출된 동굴 궁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동굴 속에 아



<그림 42> 엘로라 10굴 잔타 26굴처럼 무릎세워앉은 불상을 좌우 협시와 함께 모신다. 동굴 테두리에는 비천상이 줄지어 날아가고 가고, 아잔타와 마찬가지로 드럼 주위로 칸칸이 불상이 빼곡이 조각되었다.(그림42) 상부 하미카는 아잔타 19굴 4각각면의 중앙부 돌출이 보다 더 복잡해져 겹겹으로 돌출되어 거의 마름모 평면으로서 수직방향 내뻗침은 물론 수평방향도 겹겹 층단을 이루는 화려한 모양으로 바뀐다. 엘로라 스투파에서 평범하던 모양의 스투파가 대승불교 불상의 도입과 함께 한껏 화려하게 부처님의 세계를 펼치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는 것에 더하여, 불상궁전이 후기 아잔타에서처럼 추상적 스투파에 도입되

더니, 엘로라에서 드디어 동북아시아의 불당으로 분리되려고 하는 <그림 43> 담나르 12굴



22) Marlila Albanese, 이명혜역 「고대인도」 생각의 나무, 2003, 195쪽

최초의 시도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중서인도 밀집 석굴군과는 약간 떨어진 곳의 담나르와 바그의 두 석굴군중 아잔타 북쪽 500km 위치의 담나르는 대부분 석굴이 현무암층인데 반해 광물질 라테라이트²³⁾ 고온경화한 홍토층의 낮은 절벽에 있다. 개설 연대 추정이 쉽지 않아 현지 안내판에는 8-9세기로 나오나 4-6세기 설이 유력하다. 60여 굴중 남측열 15개굴이 중심이다. 여타굴과는 달리 스투파를 모신 차이타굴이 비하라굴 보다 더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고 작은 차이타굴 스투파 10개 외에도 옥외 스투파도 여럿 있다.(그림43, 44) 담나르 석굴은 대승불교 영향의 와불상, 입불상, 좌불상이 차이타와 비하라에 있다.

무엇보다 담나르에서는 원통드럼과는 별도로 사각대좌가 처음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 굴인 12굴 비하라굴 안마당 내의 차이타굴 속의²⁴⁾ 원통드럼의 스투파는 다시 사각 대좌위에 모셔진다.(그림44) 목이 약간 긴 반구 돛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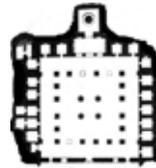


<그림 44> 담나르 스투파. 위부터 9굴,14굴: 3굴, 옥외

탑상부에 사각난간몸체 위 3층단역피라미드가 내뻗어 올라간다. 아잔타 19굴에서처럼 인도에서는 드물게 3단 수직 양산이 아치 천정에까지 붙는다. 사각대좌와 원통드럼 상하부와 난간장식이 아닌 돌출띠로 단순화 된다. 사각대좌는 한국석탑 기단의 지대석+면석+갑석의 외형, 드럼도 부처님 모시는 수미좌와 유사하다.

이 사각대좌+스투파는 긴 경사 원통드럼의 13굴을 제외하고 전체 담나르 스투파의 기본 유형이 된다. 차이타 9굴 스투파는 일부 파괴되었으나 사각대좌+원통드럼 형태는 뚜렷하다. 상하 돌출띠 드럼은 그 위에 모셔진 구형의 안다와는 조형적으로 분리되어 반구의 밑부분으로서의 드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알을 모신 원통 대좌'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그림44) 담나르 주 부 차이타굴 스투파와 옥외 여러 개의 스투파는 담나르 유형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공통적으로 사각대좌와 수미좌형 드럼위에 '부처님 알'을 모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사각을 받침으로 하는 2중기단적 대좌는 한국석탑과의 조형적 연속상에 있다고 해석한다.

최북단 담나르 석굴에서 남쪽으로 약



<그림 45> 바그 스투파 1굴, 3굴 및 3굴 평면

23) laterite: 홍토(紅土) 광물질 함유 흙이 고온 경화된 암석

24) 이회봉, 전게서 134쪽

[표 1] 석굴 스투파 형태 분석표

(석굴연대추정은 Dehejia의 208-09 표11의 연대표 사용)

석굴명	추정 연대	드림	안다 구형 %	드림 /안다 비	하미카(난간+역피라미 층단)	양산
군투팔리	B.C. 200	단순드림	반구 50	1.0	없음(멸실가능)	덤 천정 우산살
안드헤리	B.C. 110	난간흔적	반구 50	1.0	멸실	원형돔 자체
피탈코라 10굴	B.C. 100	경사드림+난간	70	1.7	멸실	멸실
" 11굴	B.C. 100	부분파괴+난간	65	1.2	난간+몸체+4층단	천정양산
바자 주굴	B.C. 90	단순드림	65	0.7	2중난간	멸실
" 14굴	주굴 보 다 후기	난간	70	1.0	난간+6층단	천정 새김
콘다네	B.C.80	표면 거의 파괴	반구	1.0	2중난간+파괴	멸실
준나르틀자라나	B.C.70	단순드림	60	1.1	멸실	원형돔 자체
아잔타 10굴	B.C.70	2중드림	55	1.3	난간+아치장몸체+3층단	멸실
" 9굴	B.C.60	단순드림	70	1.2	난간+지붕+5층단	천정 양산 그림 흔적
아우랑가바드4	B.C.60	난간띠 흔적	75	1.2	난간+기둥몸체+4층단	멸실
나식 18굴	B.C.50	난간	65	2.5	2중난간+5층단	멸실
베드사	B.C.40	올난간+2중드림난간	반구	2.0	2중난간+5층단	양산대 위 연꽃봉 오리
카를리	A.D.50	2중드림 난간	55	1.3	난간+6층단	양산 1
준나르레나드리 6굴	A.D.50	드림 난간	75	1.4	난간+6층단	멸실
" 14굴	"	3단띠받침+드림난간	75	1.5	난간+5층단	양산대 위 천정 새김
준나르쉬바데리	A.D.130	3단띠받침+드림	75	1.7	난간+5층단	멸실
쿠다 9굴	A.D.90	띠받침+2중드림	80	1.7	난간+3층단	미상
" 1굴	A.D.120	띠받침+2중드림+난 간띠	80	1.4	난간+미상	미상
" 6굴	"	3단띠받침+2중드림 난간띠	80	1.4	난간+5층단	천정 양산 새김
" 15굴	"	3단띠받침+난간흔적	85	1.4	난간+4층단	없음
칸헤리 주굴	A.D.160	2중난간띠 흔적	70	1.2	멸실 흔적	멸실
" 방형굴1	"	평드림	55	1.0	멸실	멸실
" 방형굴2	"	약경사+난간띠	70	1.2	난간+3층단	천정 양산새김
" 소봉현굴	"	불상새김+난간띠	80	1.5	난간+4층단	천정 양산새김
콜 소봉현굴	"	2중난간띠	80	1.7	몸체+5층단	없음
아잔타 19굴	A.D.450	기단위 불상 집	80	2.1	4각모집기형 4층단	3층 양산
" 26굴	A.D.450	기단위 불상집	80	2.5	불상집 몸체+9층단	파괴 흔적
엘로라 10굴	A.D.600	전면돌출 불상굴	80	2.5	4각 모집기+4층단	파괴 흔적
담나르 12굴	A.D.300- 600	4각대좌 위 드림	긴 반구	2.0	4각몸체+3층단	3층 양산
" 13굴	"	경사드림+띠돌림	75길어짐	2.0	4각몸체+3층단	단일 양산
담나르 9굴	"	4각대좌 위 드림	75	3.0	4각몸체+3층단	2층 양산
" 6굴	"	4각대좌 위 드림	65	3.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4굴	"	4각대좌 위 드림	70	2.3	4각몸체+3층단	3층 양산
" 3굴	"	4각대좌 위 드림	80	2.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상부굴1	"	4각대좌 위 드림	90	2.4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상부굴2	"	4각대좌 위 드림	80	2.3	4각몸체+2층단	천정새김
" 상부굴3	"	4각대좌 위 드림	80	2.3	4각몸체+2층단	천정 새김
" 옥외	"	4각대좌 위 드림	80	2.3	4각몸체+3층단	멸실
바그 1굴	A.D.400- 600	8각대좌 위 드림	80	2.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 3굴	"	8각대좌 위 드림	85	2.3	4각몸체+3층단	천정 새김

200km 떨어진 바그 석굴군은 4-5세기로 추정되는 석굴인데, 별도의 차이타굴 없이 1굴 3굴 모두 방형 안마당형의 비하라굴의 제일 속 중앙에 스투파를 모시는 독특한 구조이다. 비하라굴의 제일 안쪽 사당방에 스투파를 모시는 형태로서 거주굴 비하라에 스투파 예배굴 차이가 결합된 예이다.(그림45)

바그 스투파는 인도 전체에서 특이하게 8각 대좌에 모셔져있고 그 위 원통 대좌 위에 구형 알이 모셔져 있다. 아래 8각, 위 원통 대좌 각각에 여러 겹의 띠돌림이 조각되어있다. 탑상부는 사각몸체+3층단역피라미드 하미카 위에 연꽃장식 받침 포함하여 커다란 양산이 천정에 조각되어있다.

지금까지의 석굴 스투파 전체를 드럼, 안다, 안다와 드럼의 비, 하미카 모양, 양산의 모양을 대략 시기순으로 배열하여 표로 만들면 표1과 같다.

3-4. 간다라 스투파

B.C.3세기 아소카 시대 시작되어 A.D.2세기 카니시카왕 이래 쿠산왕조로 변창하다가 5세기 훈족의 침입에의해 거의 파괴된 간다라 스투파는 석굴은 없이 축적형 스투파이다. 지리적으로 현 파키스탄 북부 탁실라지역, 서북부주 페샤와르 및 마단 지역과 말라칸드 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최북단 스와트 계곡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인도 초기 평지 축적 봉분형 스투파 사원과 마찬가지로 봉분형 대 스투파를 중심으로 승원 비하라 군과 크고 작은 사당들이 산재한 '대스투파 중심 분산형' 사원 스투파와 승원 비하라와 스투파원이 같은 비중으로 정형화 되어 '일대일 병렬 규격 배치형' 사원스투파로 나눌 수 있다.

탁실라의 대스투파 중심 분산형 다르마라지



<그림 46> 탁실라 다르마라지카 주 스투파와 불상 옹위방열

카 사원의 직경 40m의 대형 석조 축조 스투파는 허물어진 돔 상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잘 남아있다.(그림46) 계단으로 오르는 상부 스투파돌이길은 이중석축 드럼으로 되어있다. 상부 드럼에도 불상 조각 감실의 흔적이 있지만, 특히 지상 스투파돌이길 외곽으로 스투파를 빙둘러 불상방으로 옹위되어있다. 간다라에서 처음 등장하는 보살상을 포함하여 내부의 불상들은 영국을 비롯한 페샤와르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다.

스투파 바닥 기단만 남아있는 마단 지역 산 꼭대기의 탁트이바히 사원과 자말가르히 사원(그림47) 모두 스투파 주변으로 불상 방들이 빙 둘러 배치되어있다.²⁵⁾ 간다라 대형 축적스투파가 인도대륙과 다른 점은 건축적으로 산치의 울타리 난간 대신, 또 아잔타, 엘로라에서 처럼 스투파 드럼부를 불상조각으로 두르는 대신, 불상방들이 스투파를 빙둘러 옹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림 47> 자말가르히 불상방 옹위 스투파원 평면과 유적 기단 전경

25) 이희봉, 전게서 134쪽 에서 디트리히 제켈이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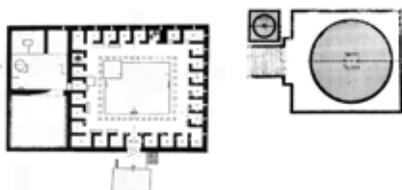
분산형 배치의 또 하나 예는 스와트의 붓카라 1스투파이다. 현재 위는 다 부서진 직경 18m정도의 원형 편마암 축적 스투파는 5차에 걸쳐 확장한 흔적의 내부 겹겹 코어를 잘 볼 수 있다.(그림48) 기단만 남은 사원지에는 대 스투파를 중심으로 대소 스투파와 비하라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있다.



<그림 48> 스와트 붓카라1 사원 주 스투파와 확장 겹겹 코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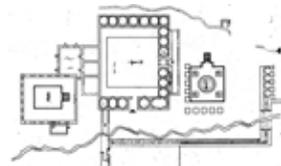
소수의 스투파 중심 분산형 배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간다라 불교사원은 배치가 비로소 정형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스투파원과 비하라원이 1:1로 대응하는 양원식 배치이다. 탁실라의 모라모라두(그림49,그림3), 자울리안, 마단의 탁티바히, 스와트의 나지그람(그림 50), 싸이두 사원이 모두 그러하다.

간다라 스투파에서 높은 계단의 넓은 정방형 기단형 대좌위에 스투파가 모셔지기 시작한다. 지면과 분리된 높은 기단이 인도의 평면적 울난간을 대체한다. 신성함의 기호로서 난간장



<그림 49> 모라모라두 사원. 비하라원+스투파원 양원식 정형배치

미술』(백승길역1985. 150쪽)에서 원형 배치 독방 비하라 승원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지적한다.



<그림 50>스와트 나지그람사원. 중앙 비하라+ 좌우 양 스투파원. 방형 기단 스투파식은 간다라에서 더 이상 없다. 원형 평면 스투파가 비로소 정방형과 습합되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의 탑과 조형상 연관을 갖게 된다.

현재 마을에 외따로 서있는 높이 27m의 싱가포르 거대 스투파 사각 기단은 주민들이 돌을 빼가서 거의 훼손되었으나 3단 처마의 높은 원통드럼과 돔은 잘 남아있다. 얇은 판석과 회반죽 몰탈의 규격 가공한 석재 축적이다.(그림51) 2단 드럼에 빙 돌아가며 돌을 쌓기로 중간기둥(탱주)열이 있다. 나지그람 스투파에서는 기둥 돌을 빼가서 오히려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근세 공식 비공식 사리 약탈로 인하여 축적 스투파 대부분 돔 한쪽 부분이 허물어져 있다.

간다라 스투파의 수직 다층으로 길어진 양산이 동북아시아의 탑으로 변환되었다는 설은²⁶⁾ 대형 축적스투파에서는 탑상부가 파괴되어 미지수이고, 다만 박물관에 보존된 봉헌 소

26) 제켈, 전게서 137-38쪽



<그림 51> 스와트 싱가다르 스투파

스투파(votive stupa)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동아시아 다층탑으로 원조로 자주 예시되는 탁실라 모라모라두 사원 봉헌 소 스투파는 드럼에 소 불상을 가득 새겨 넣은 감실을 빙 두른 여러 층의 처마형 돌림띠의 긴 원통 드럼과, 반구 돔 위 탑상부 역피라미드에 점진축소 상승형 7층 양산이 솟아있다.(그림52) 몸체에 비해 기단과 층층양산이 가늘고 길게 뻗는 특징의 원인으로서 비하라의 좁은 독방에(9번방) 모심으로써 위로 솟는 장엄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52> 모라모라두 봉헌스투파 하부와 상부

밍고라 박물관 스투파는 불좌상의 사각 기단 위 정교한 조각의 원통 2중드럼위에 연꽃 늘어뜨린 장식의 반구 안다로 되어있다.(그림 53) 그 위에 정교한 역피라미드 하미카에 3단 양산이 있다. 작은 직경의 반구 스투파에서 층층 양산을 높여 수직성이 강조된다.

봉헌 소스투파와는 달리 간다라의 대형 축적스투파는 높은 사각기단과 드럼의 높이만으

로도 충분히 웅장함을 나타내므로 기존 설에 서처럼 상륜부가 특히 높아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간다라 스투파 유형은 갑자기 변화한 특이형태라기보다 인도 대륙에서의 다양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도대륙 스투파에서, <그림 53> 봉헌 소스투 원통 드럼의 높아짐, 파. 밍고라 박물관 돌림띠의 발달과 층단화, 사각, 팔각 대좌의 발생과 수미좌형으로 변화, 양산의 주부 보좌 양산에서 만발한 양산으로 발전하여 수직 점진 3층으로 상승함과 스투파에 불상을 두른은 비슷한 시기의 간다라와 같은 방향의 변화로 해석한다.²⁷⁾

여러 층 돌림띠의 사각 기단과 드럼에도 뺄 뺄이 빙 둘러 벽감 안의 소불상이 웅위하는 간다라 스투파는 하나의 유형이 된다.(그림54) 그러나 한편 불상은 동북아시아와는 달리 독립된 불전으로

전개되지 않고 스투파 외곽을 빙둘러 웅위하거나 스투파 기단과 드럼 띠 장식으로서 여전히 스투파 중심 숭배 불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4>. 자울리안 봉헌스투파. 방형기단 위 원형 스투파. 불상 감실 띠의 연속

27) 천득염, “간다라의 불탑형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6. 119-20쪽. 간다라 스투파의 대 변화를 설명하며 “불탑의 발생지 중인도에서는 보수적으로, 형태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종합 추론과 해석

본론의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추론하며 해석한다.

1) 원형 중심성과 4방위성- 태양 방향 회전 의 만달라적 원형평면으로 시작된 축적스투파는 탑문과(산치, 바르후트) 아야카 기둥을(아마르바티, 나가르주나콘다) 통하여 4방위를 갖는다. 반면 석굴 스투파는 원형굴과(군투팔리) 둘레기둥(톨자레나)의 동심원을 통하여 중심성을 강화하나 점차 말굽형화하여 태양방위와 무관하게 자연 절벽면의 안과 밖의 2방향성만 갖는다.

2) 알로서의 안다- 복발로 오역되는 안다는 자궁속의 알로서 구형이어야 하나 축적스투파로서 하반구의 제작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반구형으로 정착되었으나 석굴 스투파에서는 구형을 회복한다. 부처님 몸체 속의, 태어날 알로서 모심과 장엄의 중심이 된다. 스투파 안다는 내부에 묻은 사리 넣은 항아리의 최외함으로 간주되어 '가득찬 항아리' 즉 만병으로 수렴된다.

3) 난간과 스투파- 스투파 보호 울타리 난간과 추락방지 상부 탑돌이길 난간과 탑상부 하미카 보호난간의 3종의 난간은 점차 스투파의 신성을 나타내는 장식 기호화 하여 바닥과 드럼에 2중 3중으로 보강된다. 난간 상세 조각은 점차 먼 띠로 단순화되고, 층층 돌림띠화하여 높이 상승을 피하고, 바닥 울난간은 3층단 받침화하여 공간의 안의 안 겹을 형성하는 소자가 되며 간다라에서는 층층 띠돌림에 밀려 완전 사라진다.

4) 원통 드럼- 기단으로 오역된, 상부 탑돌이길 용도의 드럼은 안다에 비해 비율이 점차 길어져 (높아져)(산치 0.4 -나식 2.5) 모심의 대좌화되어 상갑석 하지대석의 수미좌형으로

바뀐다.(아잔타 부조, 담나르, 바그) 간다라에서는 높은 기단형 사각대좌로 정착된다. 간다라의 드럼과 사각대좌에서 중간기둥과(탱주) 처마형 띠가 구조와 장식 역할을 한다.

원형 스투파는 사각대좌(담나르, 간다라)와 팔각대좌(바그)에 모서져 동북아시아 다각형탑과 유형상 연관을 갖는다.

5) 고귀함의 양산- 축적스투파나 석굴스투파 모두 단일 양산이 보편적인데, 부조 스투파에서 좌우 보좌 양산이 나타난다.(산치, 나식 부조) 양산대가 휘늘어진 줄기로 변하고 양산이 만발한 꽃모양으로 화려하게 바뀐 불법이 널리 퍼짐을 상징하는 '가득찬 항아리'와 스투파가 동일시되는 결과이다. 단일 단층 양산은 인도 아대륙에서 수직으로 점진 축소형 최대 3층까지 상승한다.(아잔타19, 담나르12, 아잔타9 굴 부조, 칸헤리 부조).

동북아시아 탑의 원조 형태로 예시되는 간다라 점진 다층 양산 설은 대형 축적스투파에서는 탑상부가 무너져서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봉헌 소스투파에서만 나타난다. 대형 축적스투파에서는 안다의 대규모성 자체만으로도 장엄함을 나타낼 수 있으나, 봉헌 소스투파에서는 왜소성을 공예적 조각과 더불어 과장된 다층양산의 수직성으로 보완한 결과로 추정한다.

높은 궁륭형 천정의 차이타 석굴에서 양산대를 굽게 하였어도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평천정 차이타에서는 천정에 새긴 큰 원의 양산은 온존하며, 원형 돔형 차이타에서는 돔 자체가 양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6) 하미카- 平頭라고 관습적으로 오역되는 하미카는 축적스투파에서는 전부 없어졌으나 인도 전역의 석굴 스투파와 간다라 봉헌소스투파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각 울타리 난간으로 둘러싼 위에 건물 몸체를 짓고 그 위에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하는 여러 층단의 역피라미

내뻗친 구조로 완성되며, 결코 언어처럼 평평하지 않다. 언어상 양산 바퀴만 지칭하는 相輪部에는 포함될 수 없다.

7) 축적 및 부조 스투파의 유적- 대형 봉분형 축적 스투파는 대부분 철저히 파괴되어 남은 하부구조 유적에 의해 배치와 규모와 구조 방식, 즉 동심원+방사형 구조 심벽과 덮어 쌓아 확장한 과정을 알 수 있다.

부조 스투파로서 파괴된 축적스투파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축적스투파로서 만들 수 없는 이상적 공양 모습과 호위 여신, 비천상까지 표현하여 한국탑의 공양상을 암시한다.

8) 불상과 스투파- 시원불교에서 대승의 불상 도입으로 스투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바, 원 단순 차이타 석굴 벽면에 나중에 불상을 부가 조각(쿠다, 칸헤리 방형)하거나 스투파에 불상을 직접 새겨넣기도 하나(칸헤리 봉헌소굴), 아잔타 후기와 엘로라 차이타 석굴에서처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스투파를 빙둘러 불상을 조각하거나 스투파 전면에 불상 조각으로 화하여 스투파와 불상이 통합된다.

또 다른 방식은 스투파와 불상의 병행식으로(담나르) 나가르주나콘다에서처럼 불상과 스투파를 일대일 대칭되게 배치하는 말굽형 쌍차이타 정규 유형으로 정착된다. 간다라에서는 스투파 드럼부위가 감실내 소불상의 띠 조각에서 시작하여 스투파 외곽을 불상방의 열로 옹위한다.

불상이 도입되었어도 인도불교에서 어디까지나 스투파가 중심이고 불상은 보조적 역할에 머무른다. 스투파 대신 불상을 중심으로 모시는 차이타는 없다.

9) 시기와 지역- 스투파 절대연대는 역사기록이나 석굴 명문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논란분한 추정에 불과하고, 불상도입여부가 전

후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 긴 세월의 부가로 인하여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 승가 부파와 관계되는 일정지역에 탄생한 새 유형, 즉 나가르주나 쌍차이타형 스투파, 담나르의 사각대좌 스투파, 바그의 팔각대좌 스투파, 간다라의 사각기단 스투파는 3세기에서 6세기의 서로 겹치는 시기인데 선후영향 관계는 미지수이다. 시대적으로, 최초 단순추상형태의 부처님 알을 점차 경건히 모시고자 높아지고 떠들림, 증단화하고 장식화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특수형으로 알려진 간다라 유형은 인도대륙스투파의 다양한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10) 학술용어- 일본인 선행연구자들에 시작되어 관행으로 사용해진 원 의미에 맞지 않는 명백한 오류, 현대 한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 용어, 편향된 대상을 통하여 불인 용어 등에 대하여 논증하고, 일부 새로운 시도를 한 바, 새 용어 제정 여부에 관하여 관련 학자들 간에 본격적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逸見梅榮, 「印度佛教美術考-建築篇」, 甲子社, 1929.
2. 황수영 “인도의 불탑”, 「석탑- 한국의 미 9권」, 중앙일보사, 1982
3. Snodgrass, Adrian. The Symbolism of the Stupa, Seap, 1985.
4. Tucci, Giuseppe, Stupa. Aditya Prakshan. 1932/1988
5. 中村元, 金知見역 「佛陀의 世界」, 김영사, 2005,
6. Seckel, Dietrich. 백승길 역 「불교미술」, 열화당, 1985
7. Albanese, Marlila. 이명혜역. 「고대인도」, 생각의나무.
8. Dehejia, Vidya. Early Buddhist Rock

- Temples. Cornell Univ. 1972
9. Stone, Elizabeth Rosen. The Buddhist Art of Nagarjunakonda.. Motilal Banarsidass. 1994
 10. Kahn, Ashraf. Buddhist Shrines in Swat. Saidu Sharif. 1993.
 11. 현장, 권덕주 역 「대당서역기」 우리출판사, 1990.
 12. 천득염, “인도 시원 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1993,12
 13. 이희봉, “인도 불교 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2008.8
 14. Fergusson, James. History of Indian & Eastern Architecture. Architecture, Low Price, 1910/2006,
 15. Mitra, Debala. Sanchi, Archaeology of India, 2001
 16. Kahn, Ashraf & Lone, A.G. Gandhara. 2004
 17. Nadiem, Ihsan. Buddhist Gandhara. Sang-E-Meel. 2003
 18.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 고정은 역. 「인도 미술사」 「인도미술사」 다할미디어, 1999,
 19. Werner, Karel (ed.) Symbols in Art and Religion, Motilal Banarsidass, 1991

접수(2009. 10. 15)

수정(1차:2009. 12. 14, 2차:2009. 12. 25)

게재확정(2009. 12. 27)

The Interpretation of the Indian Stupa as Origin of Korean Pagoda

Lee, Hee Bong

(Prof., Faculty of Architecture, Chung-Ang Univ.)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over historical trends and change of form of all stupas in India with observation of field study that is as direct as possible, by classifying,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stupas. Study of Indian stupa in Korea has a number of shortcomings since only introductory partial approach has been made in order to seek the origin of Korean pagoda. This study also aims to correct errors of stupa terminology in Chinese character committed by misinterpretation of Hindi language which was established by precedent Japanese scholars several decades ago .

Piled-up stupas were totally destroyed by pagans, therefore their remains tell us only of structure, material, size and disposition. However remains of carved stone at torana and drum give us clues as to the original form of stupa and worshipping activity, as well as change to a more luxurious form.

Many rock cave stupas of India show us both simple forms matching the ascetic age of early Buddhism and luxurious changes in Mahayanan era introducing us to statues of Buddha. Indians recovered the spheric form of 'anda,' a Hindi term meaning cosmic egg, from the hemispheric form of the piled-up stupa. Therefore we might discard the erratic term of 'bokbal', which means an upset vessel.

Railings and parasols became main factors of stupa design. Carved railings around stupa became a sign of divinity. Serious worshipping activity made drums long or high and created multi-embossed stripes. Bases of circular drums of some cave stupas changed their shapes to rectangular or octagonal. Single parasols became multiparasols of affluent flowerlike curved stems on carved stupa. Multistoried, elongated and high parasols of Gandhara stupas are closely related to such factors as diverse changes of form in Indian subcontinent. Four-sided torana gate and ayaka column of the circular form of original stupas suggest the rectangular form of subsequent East Asian pagoda, and higher and wider base of Indian stupas became the origin of East Asian rectangular pagoda.

Key Words: Stupa, Indian Rock Cave. Chaitya. Buddhist Cave. Gandhara.
